

교육의 본질에서
경남의 미래까지

아이들은 일상 속 작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학교에 없는 매점을 직접 만들고,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

학교와 지역의 문제까지 눈을 돌리는 아이들.

이처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험은 배움을 삶과 이어줍니다.

배움의 속도와 방식은 아이마다 다릅니다.

어려움의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 각자에게 맞는 시작점을 찾고,

교과의 경계를 넘어 현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저마다 지닌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해갑니다.

배움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과 지역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지는 봉사의 마음처럼,

학교와 가정에서 쌓은 작은 실천은 주변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경남교육이 그리고 있는 미래도 이러한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의 오늘을 세심하게 살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힘을 키우며,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이번 9월호에는 아이들의 생각과 실천이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목차

2026년 가을호 | 119호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권순기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055-278-1784)

기획총괄

홍보담당 사무관 최연희

주무관 정지수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큰그림

특집기획

04 경남교육 비전
아이의 하루에서
새로운 경남교육이 시작됩니다.

06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인터뷰
아이의 오늘을 살피고,
경남의 내일을 키우다

미래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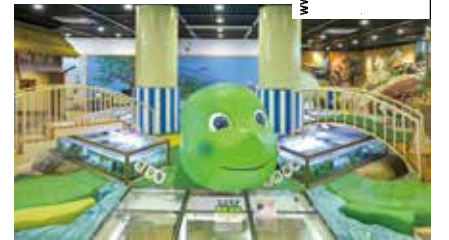
12 요즘, 아이
우리가 움직이자
학교가 달라졌다

16 요즘, 교육
아이의 속도에서 배움의 길을 찾다
진주특수교육지원센터 김지민 선생님

20 요즘, 학교
교과의 경계를 넘어 삶의 문제를 풀다
용남중학교

24 즐겁지 아니한家
경남 제1호 '자원봉사 명문가'
민기·지민이네 이야기

오른쪽 페이지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보이스 아이(VOICE EYE)를 삽입했습니다.



가치를 만나다

28 진로진학 나침판
2027학년도 입시 준비하기

30 아이 안전
우리 아이, 학교 잘 도착했을까?

34 경남교육 체험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김해·진주체험분원

재미를 더하다

38 PLAY 경남
경남 책방 산책

40 경남교육 기네스
기록으로 증명한 경남교육

42 힐링필링 교육명소
걷고 머물며 바라보는
양산의 가을 자연

정보를 즐기다

46 우리말 톡톡
9월, 절기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바른 우리말

48 마음상담소
학업 스트레스(청소년기)

50 경남교육 캘린더



아이의 하루에서 새로운 경남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은 아이가 보내는 하루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는 일부터 안전하게 학교에 오는 길, 교실에서 배우고 친구와 어울리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순간까지. 아이의 일상 곳곳에는 교육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교육은 그 역할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 지금부터 새로운 경남교육이 그려갈 비전과 다섯 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이의 성장이 경남의 미래가 되도록!



새로운 경남교육의 변화는 아이와 보호자,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의 안팎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아침과 등굣길이 조금 더 든든해지고, 교실에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배우며,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교육을 믿고 아이를 맡기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경남교육이 만들어갈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오늘을 따뜻하게 품고, 저마다의 가능성이 경남의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경남교육이 든든한 길을 열어갑니다.

경남교육이 그리는 미래

비전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아이 키우기 쉬운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떠나는 경남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
----	---	--	--



경남교육 5대 정책 및 추진전략				
인재를 키우는 경남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교육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경남교육
 • 공교육 책임보장 • AI교육 지원 • 글로벌 인재 양성	 • 돌봄지원 확대 • 생활밀착 지원 •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학생 안전망 구축 • 스포츠 활동 활성화 • 인성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 교원 교육활동 지원 •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 교육공동체 지원	 • 지역특색 기반 인프라 확충 • 지역거점 기관 재구조화 • 지역상생 교육 구현

경남교육 목표

 책임교육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상생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미래교육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 학생 성장 지원 • 교육 공정성 실현 • 현장 중심 지원 강화	• 지역 특성·자원 활용 • 학교-지역사회 협력 • 지속 가능한 상생	• AI·디지털 소양 • 글로벌 역량 • 생태 감수성 • 창의·비판적 사고

아이의 오늘을 살피고, 경남의 내일을 키우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그리는
새로운 경남교육

66

경남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을 만났다. 새로운 정책과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의 시선은 늘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정책이 아이의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학교의 일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였다. 기초학력과 돌봄, AI 시대의 교육과 교권,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길까지. 아이의 가장 가까운 하루에서 시작될 새로운 경남교육의 방향을 들어보았다.



#PART 1

아이의 오늘을 가까이 살피는 교육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려면 교실 안의 교육뿐 아니라 아침과 등하굣길, 방과 후 돌봄까지 하루를 둘러싼 생활을 함께 살피야 한다. 보호자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고 든든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새로운 경남교육이 일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변화다.



교육감님께서 꿈꾸는 새로운 경남교육은
아이들의 하루와 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제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경남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고, 모든 판단의 출발점에는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때도 그것이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 방향을 책임교육·상생교육·미래교육이라는 세 축에 담았습니다. 책임교육은 기초학력과 돌봄, 안전과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학생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입니다. 상생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배움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미래교육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며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배움의 기본을 튼튼히 세우는 일과 아이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조화를 이룰 때 공교육의 힘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새로운 경남교육이 시작되면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공교육이 아이의 하루를 지금보다 한층 가까이 살피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가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며, 방과 후에도 돌봄의 빈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아침 간편식은 아침을 거른 아이의 건강과 학습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별 여건과 효과를 살피고, 완제품이나 간편 조리식 공급 등 조리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찾아하겠습니다. 위생과 안전을 꼼꼼히 확인해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100원 등하교버스와 통학 취약지역 '에듀라인' 학생 통학버스는 등하굣길을 더 가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학생 Edu-Care 통합형 바우처를 통해 가정 형편이 배움의 기회를 가로막지 않도록 돕고, 온종일 돌봄과 방학 중 돌봄도 넓혀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의 돌봄 기관도 연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건강이 취약한 학생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변화를 먼저 느끼도록 살피겠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보듬는 것이 책임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PART 2

배움의 기본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다

변화가 빠를수록 스스로 읽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기본의 힘은 더욱 중요하다.
경남교육은 기초학력을 단단히 다지는 일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일을 함께 이어가고자 한다.

**Q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미래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아이들이 그 미래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남교육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초학력은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힘의 바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배움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습의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담 선생님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AI 기반 학습 진단은 학생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는 자료로 활용하려 합니다. 진단 결과 역시 성적처럼 공개하지 않고 아이의 성장 과정 안에서 세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학습 결손이 누적된 중·고등학생에게는 수학·과학·영어 100시간 몰입캠프 등을 통해 공부하는 습관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서와 글쓰기, 토론교육도 강화해 좋은 질문을 만들고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Q AI가 아이들의 배움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장점은 살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줄이기 위해 어떤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AI는 선생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세심하게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AI 기반 학습 진단과 학습 분석을 활용하면 학생의 강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준과 속도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학습이나 수준별 자료 제작은 AI가 도울 수 있지만, 아이의 표정과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이끌어내는 일은 여전히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문해력·집중력 저하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종이책 읽기와 글쓰기, 토론과 논술을 이어가고, AI가 만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을 검증한 뒤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따뜻하게 돕는 것이 경남형 디지털 교육의 방향입니다.





#학교 #지역사회 #기정 #학교

#PART 3

함께여서 더 따뜻한 학교



교육은 학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학교는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배움터가 된다.

Q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마음이 함께해야 할 텐데요.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교권과 학습권, 학생 인 권은 서로 맞서는 가치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질서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권 침해 를 구분하는 기준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갈등 해결 교육 등을 통해 학생도 권리와 함께 책임을 배우도록 하 겠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가칭 '경남 온라인 학부모대학'을 통해 보호자가 정책을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경남교육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돕겠습니다. 다문화 학부모학교와 한국어·이중언어 지원, 선생님 연수 도 강화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소외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는 어느 한 사람의 희생 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손을 내미는 문화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 합니다.

Q 4년 뒤, 아이와 보호자, 선생님들이 “경남교육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될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책의 이름이나 사업의 수보다 학교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되찾고,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적성과 꿈에 맞는 배움을 공교육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보호자는 아이의 아침과 등굣길, 방과 후 돌봄까지 공교육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농산어촌 거점학교와 공동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근 학교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고,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고른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소형원전 등 경남의 전략산업과 교육도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다시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고, 다양한 진로와 적성에 맞 는 교육 기회를 공교육 안에서 찾도록 돕겠습니다.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찾 아오는 경남으로의 변화는 거창한 수치보다 아이들의 표정과 교실의 분위기, 선생님과 보호자 사이의 믿음에서 먼저 드러날 것입니다.

Q 끝으로 새로운 경남교육과 함께 걸어갈 아이들과 보호자, 선생님들께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다면요?

아이 한 명 한 명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약속한 변화가 학교의 일상에 차분히 뿌리내리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의 변화는 교육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보호자와 지역사회가 서로를 믿고 마음을 모 을 때 아이들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순간에는 책임 있 게 판단하며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집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게를 견디는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경남교육도 아이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때 든든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주춧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내일을 떠올릴 때 설렘과 용기를 품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 아이의 가장 가까운 하루에서 시작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남교육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걸음이 아이들의 등굣길과 교실, 선생님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일상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아이의 가장 가까운 하루를 살피는 교육이 차곡차곡 쌓여 경남의 내일을 든든하게 키워갈 것이다.



#학교 #지역사회 #기정 #학교



우리가 움직이자, 학교가 달라졌다

작은 불편에서 변화를 시작한 영산고
‘체인지메이커스’



변화를 만들어가는 영산고 ‘체인지메이커스’ 학생들

학교에 매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은 “불편하다”고 말하고 지나치지만, 영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다른 답을 내놓았다. “없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학생들은 선생님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돈을 모아 물건을 사고, 점심시간마다 매점의 문을 열었다. 매점을 운영해 얻은 수익은 다시 지역의 이웃에게 전했다. 작은 불편을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선 학생들. 영산고 동아리 ‘체인지메이커스’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나’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된 변화

체인지메이커스는 주변의 불편한 점을 찾아 직접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동아리다.

“처음에는 ‘나 바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는 우리 학교, 우리 지역, 우리나라로 목표를 점점 넓혀 가는 거죠.”

동아리 부장인 태원 군은 동아리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체인지메이커스는 태원 군을 비롯해 총 13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나의 습관 바꾸기였다. 재은 양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메모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공부뿐 아니라 그날 끝내고 싶은 일을 한 페이지에 적어 두니 하루의 계획이 한눈에 들어왔다. 태원 군과 현성 군, 완중 군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기로 했다. 눈을 뜨면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기며 서로의 실천을 확인했다. 물론 매일 성공한 것은 아니다. 방학이 시작되자 계획이 조금씩 밀리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 놓고 다시 침대에 눕는 날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일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는 일이었다. 알람을 듣고도 좀처럼 혼자 일어나지 못했던 태원 군은 이제 스스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변화는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 것이다.



영산면사무소에 간미매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체인지메이커스

매점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본 학생들은 두 번째 질문을 꺼냈다. “우리 학교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른 학교에는 다 있는 매점이 영산고에는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던 현성 군이 아이디어를 냈다. 간식을 사 먹는 작은 즐거움이 생기면 친구들이 학교에 오는 일도 조금 더 즐거워질 것 같았다. 학생들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계획을 세웠다. 운영 방식과 판매 물품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선생님과 학교의 허락을 구했다.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김미연 교장 선생님은 매점이 단순히 간식을 파는 공간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함께 고민했다. 간식 때문에 학생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카페인과 탄산음료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짚어 주며, 매점을 보다 건강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판매 품목에 기준을 세웠고, 빵과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제외한 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상품을 골랐다. 운영 자금도 학생들이 직접 마련했다. 동아리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첫 상품을 구입했고, 판매 대금으로 다시 물건을 들여왔다. 매점 이름은 ‘영.매.사’, ‘영산고 매점 사장님들’을 줄인 말이다. 이름 그대로 학생들은 물건을 고르고, 주문하고, 진열하고, 판매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사장이 됐다. 처음에는 동아리원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중심으로 상품을 골랐다. 운영을 이어가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활용

해 학생들이 원하는 상품을 조사했다. 반응이 좋지 않은 상품은 빼고 새로운 간식을 들여오며 판매 목록도 계속 바꿨다. 교과서에서 단어로 접했던 자본금과 원가, 판매가, 수익, 재고가 매일 확인해야 하는 현실의 숫자가 됐다. 매점 운영 시간은 점심시간 중 단 15분. 손님이 몰리면 판매와 계산, 장부 기록이 한꺼번에 이뤄졌다. 특히 학생들을 애대운 것은 ‘외상’이었다. 먹고 나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잊어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금을 맡은 현성 군은 몇 번이고 돈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겨야 했다. 차장 겸 총무인 완종 군 역시 날짜와 판매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때마다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사 먹는 건 좋은데, 제발 돈은 꼭 보내 주세요.”

웃으며 건넨 말이지만 그 안에는 매점을 직접 운영해 본 학생만이 알 수 있는 고충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매점을 운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만큼 정확한 기록과 책임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매번 다른 공간을 오가는 불편도 있었다. 지금 체인지메이커스가 가장 바라는 매점 비품은 크고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작은 냉장고 한 대, 그것도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하나다.

과자 한 봉지가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영.매.사의 목표는 단순히 간식을 판매하는 데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매점을 시작할 때부터 수익을 모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먼저 살 수도 있었지만, 처음 세운 약속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약 6개월 동안 매점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은 30만 원. 학생들은 이를 지역의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돈에는 매일 점심시간을 내어 물건을 나르고 계산한 학생들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매점을 이용한 영산고 학생들도 과자와 음료 한 개를 사며 자연스럽게 나눔에 힘을 보탠 셈이다. 재은 양은 지금도 기부를 마친 뒤에 느낀 감정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몇 달 동안 매점을 운영한 결과가 눈앞에 보이니까 가장 뿌듯했어요. 지금까지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원 군 역시 외상값을 받지 못해 속상했던 순간과 운영의 어려움이 기부를 마친 뒤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다음 수익금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할 계획이다. 학교 안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매점이 학교 밖 이웃에게까지 작은 온기로 전해진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영산고 매점



학교 밖으로 향하는 다음 걸음

체인지메이커스의 시선은 이제 학교 앞의 방치된 사유지로 향하고 있다. 낡은 건물과 쌓여 있는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었다.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지만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쉽게 손댈 수 없어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개인의 사유지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도 구상해 두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결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 학생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공간이 정비되면 학생과 주민이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완종 군은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면 주변의 다른 문제도 조금씩 개선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인지메이커스는 아직 완성된 동아리가 아니다. 매점에는 냉장고가 필요하고, 외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학교 앞 사유지 문제 역시 해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이미 하나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후배들이 그 위에서 더 크고 새로운 변화를 이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습관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해 학교를 바꾸고, 이제 지역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아이들. 체인지메이커스가 보여 준 변화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다.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눈,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는 마음, 잘되지 않아도 다시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다. 오늘 영산고에 생긴 변화는 매점 하나뿐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매점을 직접 만든 아이들은 이제 알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누군가 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영산고 매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맞춤형 진단

아이의 속도에서 배움의 길을 찾다

진주특수교육지원센터
김지민 선생님



글자를 읽는 일이 유난히 어렵거나, 수업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인지적·정서적·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얹혀 있을 수 있다. 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지민 선생님은 진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찾아간다. 1대1 수업과 상담, 기초학습과 진로직업교육 등 학생의 요구에 맞춘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핵심교원으로 활동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종합심리검사도 진행한다. 아이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각자의 속도에 맞는 배움의 길을 함께 설계하는 김지민 선생님을 만났다.

노력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

“학생들은 노력하지 않는 것도,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배움을 향해 나아갈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지민 선생님이 처음 만나는 아이들은 표정이 굳어 있거나 긴장한 경우가 많다. 잦은 실패로 위축되고, 또다시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 모습 앞에서 김지민 선생님은 검사보다 먼저 아이를 안심시키고 닫힌 마음을 여는 일부터 시작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학습의 어려움은 결코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이나 읽기 곤란, 우울과 불안, ADHD,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적 능력은 평균 또는 그 이상이지만 우울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학습할 에너지가 고갈된 아이도 있고, 인지 기능의 특성에 따라 자신만의 속도로 배워야 하는 아이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왜 못했는가’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배움을 어렵게 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수치 너머, 아이의 '시작점'을 찾다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첫 매듭을
찾아내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살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종합심리검사는 아이의 인지 기능과 정서·행동 특성, 일상생활 적응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 아이는 어떤 이유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한 과정이다. 검사에 앞서 김지민 선생님은 15~20분 동안 아이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아침을 먹었는지 묻고 좋아하는 게임이나 캐릭터 이야기를 들으며 긴장을 풀어준다. 이 시간이 아이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검사 중에도 정답보다 시도와 노력에 초점을 맞춰 격려한다. 아이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검사 결과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시작점’이다. 아이가 지닌 강점은 작은 성취를 시작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 여러 어려움이 얹힌 실타래를 풀어낼 첫 매듭이 되기도 한다. 부족한 점만 바라보면 막막함이 커지지만, 강점과 핵심 단서를 찾으면 비로소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성장의 길을 설계할 수 있다.

진단에서 지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검사 결과는 아이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실제 수업과 지원의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김지민 선생님은 검사 후 보호자와 담임 선생님을 직접 만나 수치나 진단명보다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작업기억 점수가 낮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시하기보다 한 가지씩 짧게 안내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학습 의욕이 낮고 대집단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던 한 아이도 있었다. 종합심리검사와 담임 선생님·보호자 상담 결과, 배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우울·불안과 ADHD가 의심돼 지역사회 전문기관에서 진단과 치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보호자와 담임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의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학교 역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과 연계해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단을 통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맞춤형 지원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종합심리검사는 진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이의 특성에 맞는 학습코칭과 정서·심리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된다. 진단에서 맞춤형 지원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과정은 배움의 어려움을 아이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 기초학력의 안 전망이기도 하다.

느린 걸음도 근사한 여정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 마음을 돌보면,
느린 걸음은 더 큰 나를 만나는 근사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이 느린 아이에게 공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오르막길과도 같다. 이때 필요한 것은 느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는 힘이다. 김지민 선생님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도 수치와 데이터가 ‘이해와 희망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에 있다. 아이에게서 문제를 찾던 보호자와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라며 함께 방법을 고민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숲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는 세심함으로 진단에서 맞춤형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교육 안 전망을 만드는 일. 이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는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책임교육 속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자란 아이들이 당당히 뿌리내리고, 마침내 푸른 숲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PBL DAY 활동 결과물을 선보이는 학생들

교과의 경계를 넘어, 삶의 문제를 풀다



질문과 협력으로 채운 용남중학교 PBL DAY

※ Project Based Learning(프로젝트 기반학습) DAY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바나나 재배 지역이 달라지고, 기온 상승은 새로운 감염병과 먹거리의 변화로 이어진다. 사회에서 살펴본 기후 현상은 보건과 기술·가정 수업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아열대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들의 실천 가이드’를 만든다. 서로 다른 교과에서 출발한 지식이 하나의 현실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순간이다. 용남중학교는 2026학년도 경남형 IB(G-IB) 준비학교로 선정된 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해 왔다. 교과서 안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배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이 전일제 프로젝트 수업 ‘PBL DAY’다. 교과의 경계를 넘어 삶과 삶을 잇는 용남중학교의 특별한 하루를 들여다보았다.

하루를 온전히 배움의 흐름으로



“수업 시간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와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45분 단위로 끊어지는 교과 수업만으로는 깊이 몰입하기 어려웠다. 복합적인 문제를 충분히 탐구하고, 앞선 수업의 질문을 다음 교과에서 이어가기 위해 용남중학교는 하루 전체를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1학년부터 첫걸음을 내디딘 이윽도 평가의 부담을 덜고 탐구의 즐거움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수업을 설계한 힘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연구에서

나왔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선생님들은 매주 한 차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수업을 공유했다. 교과서의 차시별 내용에 머물렀던 시선에서 벗어나, 각 교과가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길러줄 것인지 목표부터 함께 세웠다. 과목을 많이 묶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질문 안에서 각 교과가 분명한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경험으로 이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살폈다.

교과서 밖에서 만난 '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교과 지식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열대커넥션’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기후 위기였다. 그러나 아이들이 만난 기후 위기는 멀리 있는 북극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기온이 오르면 좋아하는 과일과 초콜릿을 먹기 어려워질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유행하던 감염병이 우리 동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회에서 확인한 기후 자료는 보건 시간의 건강과 안전 문제, 기술·가정 시간의 식생활 문제로 이어졌다. 바나나빵을 만들고 지역 브랜드의 이야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요리와 마케팅, 발표 역할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엮었다. 과학·수학·도덕이 만난 ‘절제의 미학-탄소’에서는 자신의 하루가 만들어 내는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했다. 수치와 실험을 통해 이상기후와 자신의 생활을 연결한 아이들은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도덕의 가치를 일상의 ‘절제’로 옮기기 시작했다. 배운 내용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는 배움이였다.

한 가지 정답보다 다양한 빛을 발견하다

‘프로젝트 ME’에서는 국어와 영어, 미술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언제 가장 나답게 빛나는가’라는 질문으로 만났다. 아이들은 자신이 빛났던 순간을 비유 표현과 스스로에게 주는 상장으로 나타내고, 자신을 닮은 동물이나 사물을 영어로 소개해 목소리로 남겼다. 미술 시간에는 그 내용을 자화상으로 표현하고, 국어 상장과 영어 녹음 파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하나의 큐브 안에 담았다. 평소 발표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작품의 의미를 차분히 설명하고, 말로 자신을 표현하기 조심스러워하던 아이가 그림과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음악 활동에서는 자신감이 없던 아이가 체육 활동에서 친구들을 이끌며 안무를 제안하고, 글쓰기에 강한 아이는 응원가 가사로 모듬에 힘을 보탰다. 표현의 길이 다양해지자 교실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강점도 저마다 다른 빛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실패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정답이 없는 수업에서 선생님은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비추는 나침반이 된다. 아이들이 막혔을 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우리가 놓친 조건은 없을까?”라고 묻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모듬도 그 결과를 감추거나 정답처럼 꾸미지 않았다. 첫 단계부터 실험 과정을 되짚으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결과를 정답에 맞추기보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논리를 다시 구성해 나간 것이다. 결과보다 질문과 탐구의 과정을 존중했기에 가능했던 변화다.

특별한 하루를 학교의 일상으로

프로젝트가 끝난 뒤 아이들은 성찰지를 통해 모듬에서 맡은 역할과 자신이 낸 아이디어, 새롭게 배운 점을 돌아보았다. 선생님들도 수업의 흐름을 함께 복기하고 보고회를 열어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첫 시도인 만큼 점수보다 ‘배움의 즐거움을 체득하는 경험’에 무게를 두면서도, 앞으로 교육과정과 평가에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용남중학교가 꿈꾸는 융합 수업의 본질은 선생님이 조금 덜 가르치고,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내어주는 데 있다. 정답보다 질문을,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힘을 얻는다. PBL DAY가 남긴 것은 하루 동안 완성한 결과물만이 아니다. 정답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질문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감추기보다 다시 원인을 살피며, 혼자 해결하기보다 친구와 생각을 나누는 새로운 배움의 태도다. 선생님들이 함께 수업을 고민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길을 만들어가는 풍경. 용남중학교는 그렇게 특별한 하루의 경험을 일상의 수업 문화로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다.



- 01 '절제의 미학 - 탄소' 수업 (도덕, 수학, 과학) 속 실험 중인 학생들
- 02 '절제의 미학 - 탄소' 수업 (도덕, 수학, 과학) 속 계산 중인 학생들
- 03 '비트위에 몸을 싣고' 수업 (음악, 체육) 중 안무 연습 중인 학생들
- 04 '프로젝트 ME' 수업 (국어, 영어, 미술) 중 자화상을 그리는 학생들
- 05 '아열대 커넥션' 수업 (기술·가정, 보건, 사회) 중 발표하는 학생

김해 수남중학교 2학년 민기와 관동초등학교 5학년 지민이네 가족은 2023년 경남 제1호 '자원봉사 명문가'로 선정되었다. 산청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해 온 할아버지 박주영 씨와 할머니 윤숙이 씨, 교사로 학생들과 재능기부를 이어가는 아버지 박현성 씨와 어머니 구은복 씨,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봉사 현장을 누빈 민기와 지민이까지. 3대가 쌓은 봉사 시간은 벌써 6,000시간을 넘어섰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삶의 행복을 물려주자." 는 이들의 가훈처럼 한 세대가 심은 나눔의 씨앗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에게 번져 가고 있다. 세대를 건너 행복을 물려주는 민기·지민이네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 봉사의 씨앗을 심다
산청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할아버지·할머니의 나눔 }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함께 나섰고,
그러다 보니 봉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지요.”

가족의 봉사는 산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을에 큰 행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섰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 활동에 참여했고, 적십자 봉사단 활동으로 봉사를 실천해왔다. 할머니는 퇴직 후 지금까지도 생초초등학교 차량 탑승 봉사와 지역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산청에 큰 산불이 났던 날이다. 주민들이 대피하고 식당마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적십자 봉사자들은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식사와 뒷정리를 도왔다. 불길과 맞서다 얼굴이 검게 그을린 채 겨우 한 끼를 먹는 소방



세대를 이어 나눔을 실천하는 민기·지민·아버지 박현성 씨·어머니 구은복 씨·할머니 윤숙이 씨·할아버지 박주영 씨(왼쪽부터)

행복을 물려주는 가족

경남 제1호
'자원봉사 명문가'
민기·지민이네 이야기





미래를 꿈꾸다 | 아니한家

돌봄교실 재능기부 봉사활동



생초 적십자 밭차 봉사

관들을 보며 할머니 윤숙이 씨는 가장 힘든 순간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것이 봉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평소 두 사람은 자녀에게 봉사를 강요하지 않았다.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야 오래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묵묵히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 박현성 씨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한 가지 다짐이 자리 잡았다. 자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다.

**봉사를 교육으로 있다
학생들과 재능을 나누는 아버지-어머니**

김해신안초등학교 교사인 박현성 씨는 교직에 들어선 뒤 육아원 학습 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마술을 배웠고,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재능기부를 이어갔다. 관동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구은복 씨도 그 길에 함께했다. 봉사료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

과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느낀 봉사의 기쁨을 더 많은 아이와 나누고자 '상상을 현실로 사제 동행봉사단'을 만들었다. 봉사단 이름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누며, 언젠가는 꿈꾸는 삶까지 현실로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마술을 배우고 연습해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공연을 한다. 자신이 익힌 마술을 또래 친구나 어린 동생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

**“봉사는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웃게 하면
아이들은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박현성 씨는 이를 '1석 2조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나누는 사람은 재능을 키우며 성장하고,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은 웃음과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교사와 학생들이 봉사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봉사가 일상이 되다
따라가던 아이에서
나누는 아이로 자란 민가-지민이**

민가와 지민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육아원과 아동센터에 다녔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생일잔치에서 케이크를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기억도 선명하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나들이처럼 느꼈지만, 자라면서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봉사를 가는 일이 늘 반가웠던 것은 아니다. 친구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쉬는 주말, 먼 곳까지 따라나서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보여준 마술에 동생들이 활짝 웃고, 자신이 가르친 친구들이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마술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다.

**“제가 가르쳐 준 마술이
친구들을 거쳐 어린 동생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그럴 때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봉사단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민가는 학교 친구들에게 마술을 가르치며, 친구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교실을 방문해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민이도 가족과 함께 봉사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을 헤아리는 마음을 배웠다. 돌봄 교실이나 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생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새삼 깨달았다. 두 아이가 가족에게서 배우는 것은 봉사만이 아니다. 가족은 한 달에 두 번씩 산청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간다.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일정을 미루고 기다려 주는 조부모의 따뜻한 속에서 아이들은 사랑과 효도를 배운다. 가족이 함께한 여행과 일상을 담은 앨범만도 스무 권이 넘는다. 이 가족에게 나눔은 먼 곳의 이웃을 돕는 일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정히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경남 세바시 경연대회 참가 우수상 수상

**함께할수록 커지는 행복
3대가 이어 가는 우리 가족의 약속**

경남 제1호 '자원봉사 명문가'라는 이름은 이 가족에게 자랑인 동시에 새로운 약속이다. 지나온 봉사 시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책임감 있게 나눔을 이어가겠다는 다짐. 그래서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상을 받던 날보다 함께 봉사했던 평범한 하루들이다. 온 가족이 공연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웃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봉사가 이웃뿐 아니라 가족의 마음까지 더 가까이 이어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청의 작은 마을에 심은 나눔의 씨앗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실에서 자랐고, 이제 민가와 지민이의 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 긴 시간 봉사를 이어오며 도움을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가족은 말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삶의 보람을 발견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한 시간이 모두 봉사가 건넨 선물인 것이다. 아마도 이 가족이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나누는 사람도, 그 마음을 받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아닐까.

알쏭달쏭

2027학년도 입시 준비하기

2028 수시에서 졸업생은 지원이 불가능한가?

2028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졸업생의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되면서 대학들은 교육과정과 성적 체계가 다른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 평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에서는 내년 입시부터 졸업생 교과전형 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천대,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등은 교과 전형에서도 졸업생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졸업생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는 분명 문은 좁아졌지만, 수시 전체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시 전체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생각은 더욱 맞지 않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리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교과와 과목들이 학기제로 바뀌었기에 수업의 질이 현재 고3 학생들과 비교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졸업생의 기록이 다양한 역량이 내실화되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8 수능 체제 변화는 졸업생에게 불리한가?

2028학년부터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의 경우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치러지지만, 시험 방식이 변화되고 과목 수가 줄어들고 하여 졸업생에게 꼭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의 가장 큰 강점은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풀이와 실전 훈련에 집중해 성적을 끌어올릴 여지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3 학생들은 선택형 수능 체제에서 국어·수학·사회·과학의 선택과목을 깊이 있게

올해 고3은 현행 대입 제도의 마지막 수험생입니다. 2028 대입을 앞두고 교육과정과 대입이 크게 바뀌면서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안정 지원의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입시에 지원했던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며 안정 지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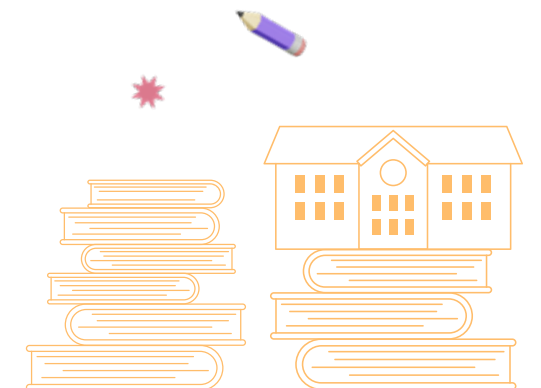
학습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을 준비하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능 체제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졸업생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2027 대입은 무조건 불리한 건가?

올해 고3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절대적인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가 약 500여 명으로 확대된 점도 상위권 대학에는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500여 명을 모집하더라도 총 지원 인원을 고려한다면 꽤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첨단학과의 모집 인원도 175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안정 지원으로 가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올해 입시에서 무조건적으로 고3 학생들에게 안정 지원만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교과전형은 지원자의 내신이 전년도 최종 등 록자의 50% 이내에 위치한다는 전제하에 최저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에 1~2장 지원하고, 종합전형은 적정과 상향을 섞어 지원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경쟁률과 올해의 경쟁률까지 참고하여 지원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2학기 시작! 3가지 약속으로 만드는 안전한 등하굣길

선선한 바람과 함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은 안전한 등하굣길에서 시작됩니다.
학생, 보호자,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하루를 지킵니다.
교통안전 3가지 약속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약속 횡단보도에서는 '여유 있게'

등교 시간, 마음은 급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멈춰 주변을 살펴주세요.

보행 3원칙 기억하기



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걸음 뒤에서 멈추기

-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먼저 확인해요.
- 급하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보다 좌우를 살피고 차량 확인하기

- 왼쪽·오른쪽을 충분히 살펴보세요.
-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 더욱 안전해요.



걷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건너기

- 초록불에도 뛰지 않고 걸어요.
- 스마트폰은 잠시 넣고 앞을 살펴요.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면?

서두르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요



걷는 순간, 스마트폰은 잠시 주머니에 쏙!

화면보다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안전을 지킵니다

두 번째 약속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필수'

가을철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을철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수칙 실천도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고,
이어폰은 잠시 내려놓아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은 실천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듭니다.

오늘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함께 실천해 주세요.



**안전모 착용은
필수!**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비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자전거를 탄 채 건너면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잠시 내려놓기**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약속 승하차는 '정해진 구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승하차 구역 이용하기

-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시야를 가립니다.
- 정해진 승하차 구역을 이용해 주세요.



탈 때는 보도에서 기다려요

- 보도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요.
- 차량이 완전히 멈춘 뒤 탑승하세요.



내릴 때는 인도 방향으로

- 차문을 열기 전 주변을 살펴요.
- 인도 방향으로 안전하게 내려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천천히

-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전하세요.
-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멈춰 확인해요.



학생, 보호자,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의 약속, 함께 지켜주세요!

작은 자연을 만나고
생명을 배우다
오감으로 자라는 생태놀이터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흙을 만지고, 물의 흐름을 따라가고,
풀꽃길에서 작은 생명을 발견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며 배우고
성장하는 생태체험 공간이다.
자연을 단순히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느끼고 탐색하며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익히는 이곳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중물체험 중인 아이



김해체험분원 아해동산



자연과 함께

생태 감수성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

“유아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이하고 탐구하며,
생태감수성과 창의성,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
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김해체험분원의 체험은 ‘무엇을 보고 왔는가’보다 ‘무
엇을 느끼고, 탐색하고, 놀이로 확장하며 성장했는가’
에 초점을 둔다. 자연을 매개로 호기심과 탐구력, 사
회성, 생태감수성을 함께 키우는 것이 이곳의 목표다.
선생님은 정해진 답을 알려주기보다 아이들의 반응
을 세심하게 살핀다. “왜 그럴까?”, “다른 방법도 있을
까?”와 같은 질문으로 탐색을 넓혀주고, 아이들이 자
신의 속도에 맞게 보고 만지고 움직이며 스스로 발견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자연이 교실이 되는 공간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배움이 자
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자연의 재료와 지형을 최대한 살
린 체험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중물에서는 물
의 흐름과 변화를 경험하고, 모래놀이와 흙산에서는
흙과 모래의 성질을 탐색하며 친구와 협력한다. 숲속
목공놀이터에서는 나무와 자연물을 활용해 놀이를 만
들고, 텃밭에서는 씨앗을 심고 가꾸며 생명의 성장과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낀다. 생태체험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도 꼼꼼히 살핀다. 체험 전 시설
과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절과 날씨에
따른 안전 상태도 확인한다. 활동 중에는 담당 선생
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한
다. 아이들이 자연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도 보호받
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족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생태 배움

“가족이 함께하는 생태체험은 자연을 바라보는 같은
시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나들이 토요일 생태체험’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생태체험’에서는 보호자와 아이가 자연을 함께 관찰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나눈다. 누리집에는 매월 생태
놀이 활동과 생태추천도서를 소개해 유치원과 어린이
집, 가정에서도 놀이를 이어가도록 돕는다. 생태공감
교원 연수와 지역사회 연계 체험도 이러한 배움을 넓
혀가는 중요한 축이다. 선생님들은 분원의 자연환경
과 다양한 생태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생태적 감
각을 키우고, 그 배움을 다시 유아 체험과 교육 현장
에 나눈다. 지역에서 얻은 경험이 분원으로 모이고, 다
시 교육 현장으로 퍼져나가는 생태교육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다정한 마음

이러한 생태교육의 의미는 아이들의 작은 행동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풀꽃길을 걷다 도롱뇽과 우
렁이, 물달팽이를 발견한 아이들은 작은 생명을 조심
스럽게 관찰한다. 허브의 향기를 맡고 직접 만든 향기
주머니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겠다고 꼭 쥐고 있
는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자연에서 느낀 감동이 생명
을 아끼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태도로 이어지
는 순간, 김해체험분원이 지향하는 생태교육의 가치
역시 더욱 뚜렷해진다. 이곳에서 쌓은 오감의 경험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자연과 사람을 존중하
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

풀꽃길에서 허브주머니 만들기체험 중인 아이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내 '로봇놀이터'



물체체험놀이터에서 펌프놀이 중인 아이



로봇놀이터에서 '카미봇으로 미로를 탈출해요' 활동 중인 아이

아이의 질문이 자라는 곳

작은 호기심이 위대한 발견으로
놀이가 배움이 되는 과학놀이터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바람을 타고 공이 두둥실 떠오르고,
아이가 만든 물길을 따라 물레방아가 돌아간다.
눈앞의 변화에 아이들은 “왜 그럴까?”를 묻고
다시 손을 움직인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은
이처럼 호기심이 질문과 탐색으로 이어지는 과학놀이터다.
아이들이 빛예술, 바람공, 물, 건축 블록, 동화, 영상,
로봇놀이터를 넘나들며 과학의 원리를 경험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곳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질문이 자라는 유아 주도 체험

“아이들의 작은 호기심이 즐거운 놀이와 배움으로 이
어지는 공간을 꿈꿉니다.”

진주체험분원의 체험 공간은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해 놀이와 탐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되
어 있다. 물체체험놀이터에서는 물의 흐름과 힘을, 바람
공놀이터에서는 공기의 움직임과 방향 변화를 놀이로
경험한다. 빛예술·건축블록·영상·동화·로봇놀이터에
서도 아이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문제를 해결
하는 경험을 이어간다. 교사는 정답을 먼저 알려주기
보다 “공은 어떻게 움직일까?”와 같은 질문을 건네며
유아의 탐색을 돕는다. 같은 공간에서도 아이마다 관
심과 놀이의 방식은 다르다. 진주체험분원은 그 차이
를 존중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발견하는 순간
을 의미 있는 배움으로 여긴다.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유아가 마음껏 도전하고 탐색하려면 무엇보다 안전
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놀이로 발견하는 과학

모든 체험은 사전 안내와 안전교육을 마친 뒤 시작된
다. 아이들은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하고, 담임 선
생님과 체험 담당 선생님이 함께 활동을 살핀다. 참여
인원이 많은 ‘생각쑥쑥 토요 과학체험’과 ‘재미팡팡
과학축제’에는 자원봉사자를 주요 이동 동선에 배치
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살핀다. 체험시설과 기구는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정
비한다. 또한 모든 교직원들은 응급 대응 절차를 숙지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
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시도하고 다
시 도전할 수 있는 바탕에는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손
길이 있다.

체험실을 넘어 일상으로 이어지는 놀이

“체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의 놀이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체험분원은 체험에서 쉼튼 호기심과 즐거움이 일
상 속 놀이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누리집에는
‘미리 보는 체험’ 영상과 선생님들이 연구한 과학놀이

자료를 제공해 체험 전후에도 과학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생각쑥쑥 토요 과학체험’에서는 보호자
와 아이가 7개 체험실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함께 질
문하고 탐색한다. 이때 보호자는 아이의 놀이를 지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탐구하는 동반자가 된다.
체험을 마친 아이가 배웅하는 교직원에게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발견한 것을 신
나게 들려줄 때가 있다.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하고 스
스로 무언가를 발견해 가는 모습, 그리고 돌아가는 순
간까지 체험의 즐거움을 간직한 아이들의 밝은 표정
을 만나는 것이 진주체험분원 교직원에게 가장 큰 보
람이다.

작은 호기심이 내일의 배움으로

진주체험분원에서 아이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다시
시도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간다. 놀이 속에서 피어
난 호기심이 일상 속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고, 스스
로 배우고 성장하는 든든한 힘으로 오래 남기를 기대
한다.

가을바람 따라 걷는

경남 책방 산책



책 한 권이 필요할 때 클릭 몇 번이면
다음 날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도 일부러 동네 책방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가를 천천히 거닐다 예상하지 못한
책을 발견하고, 책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온라인 주문으로 대신하기 어렵다.
책과 사람, 지역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
저마다 다른 매력으로 가을날의 발걸음을
이끄는 경남의 책방을 만나보자.

책과 사람, 지역이 만나는 오후 함양 '오후공책'

지리산 자락의 함양에 자리한 오후공책은 서점이자 카페이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작은 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작가 초청 북토크와 음악 공연, 소규모 책모임과 글쓰기 모임이 꾸준히 열린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도 다채롭다. 시골 책방의 역할을 전하는 '서점지기 사람책'과 환경 강연을 비롯해 천연 수세미 바느질, 나뭇잎 스탬프 책갈피, 자투리 재료를 활용한 예술 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곳 오후공책은 책을 매개로 이웃이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지역의 작은 사랑방이다.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67, 1층



오후공책



진주문고



청학서점

텍스트힙

새로운 세계의 첫 장을 펼치는 곳 진주 '진주문고'

1986년 사회과학서점 '개척서림'에서 출발한 진주문고는 올해로 40년을 맞았다. 1층부터 3층까지 분야별 책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서는 책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북카페 '진주커피'와 생활갤러리 '아트스페이스진주', 문화공간 '여서재'와 '진주북라운지'가 어우러져 차를 마시고 전시를 감상하며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지역의 문화공간을 이루고 있다. 9월에는 진주문고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전시와 단골들의 이야기를 담은 강연, 김상욱 교수의 초청 강연 등이 이어진다. 11월에는 김애란 작가가 진주문고를 찾아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철학자와 과학자, 시인과 예술가를 소개하고, 우연히 집어 든 한 권의 책이 더 넓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왔다. 책을 고르는 즐거움에서 새로운 사람과 세계를 만나는 경험까지, 진주문고는 지역민이 누리는 문화의 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40번길 8 진주문고(본점)

책과 음악, 사람의 기록이 쌓이는 곳 밀양 '청학서점'

1961년 문을 연 청학서점은 오랜 세월 밀양의 곁을 지켜온 동네 서점이다. 2013년 시작한 독서모임 '다락방'을 비롯해 현재 여덟 개의 독서모임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서점은 책을 좋아하는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드나드는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청학서점에서는 북토크와 전시, 글쓰기 수업은 물론 책장 사이에서 클래식 음악회도 열린다. 어린이 독서감상화 도록과 독서모임 서평집, 음악회 아카이브북을 만드는 기록 활동도 꾸준히 한다. 책이 음악과 미술, 교육으로 뻗어가는 곳. 청학서점에는 긴 시간 책을 매개로 이어온 밀양 사람들의 관계와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주소 경남 밀양시 미리벌중앙로1길 5-1

취향과 문장으로 사람을 잇는 곳 창원 '텍스트힙'

창원 가로수길에 자리한 텍스트힙은 '책 읽는 사람이 가장 힙하다'는 의미를 담은 인문 큐레이션 서점이다. 이곳에서는 태어난 날이 같은 작가의 책을 소개하는 '생일책', 성격 유형에 맞는 'MBTI 책', 표지와 제목을 가린 채 소개 문장만으로 고르는 '비밀책', 독자의 고민에 책을 처방하는 '처방책' 등 다채로운 북큐레이션을 만날 수 있다. 필사 공간과 클래스룸에서는 독서모임과 북토크, 강연도 꾸준히 진행된다. 최근에는 지역의 청년 자영업자와 예술가, 시민이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넓혀가고 있다. 책을 매개로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나누는 텍스트힙은 낯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관계를 맺는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이다.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56 지하1층

기록으로 증명한다

경남교육



경남 수능만점자 배출 최초의 학교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정서현,
창원문성고등학교 조세현(2012년 졸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 최초의 수능 전 과목 만점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경남외국어고등학교의 정서현과 창원문성고등학교 출신 조세현(2012년 졸업)으로, 1993년 수능 제도 시행 이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전 영역 만점을 기록한 사례였다. 이전에도 2010년 통영 충렬여자고등학교에서 언어·수리·외국어 등 필수과목 만점자가 있었으나 탐구영역까지 포함한 '전 과목 만점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능 만점자는 원점수 기준이며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이 다르기 때문에 탐구영역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총점이 달라진다. 경남외고의 정서현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은 물리와 사상을 선택하여 2014학년도 수능 만점자 33명 중 전국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교육활동을 한 학생

칠원고등학교 1학년 안현준

칠원고등학교 안현준 학생은 학업과 함께 다양한 학교 안팎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남교육기네스 '가장 많은 교육활동을 한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안현준 학생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독서 기록 109권, 봉사활동 174시간, 캠프 수료 21건, 수상 경력 42건을 기록하며,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독서를 통한 사고력 향상,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다양한 체험캠프를 통한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적 성장을 실현하여 '배움의 주체'이자 '활동형 인재상'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걷고 머물며 바라보는 양산의 가을 자연



Yangsan

양산의 가을은 천천히 걸을 때 더 선명해진다.
소나무 사이로 난 길에서는 바람과 계곡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산이 둘러싼 골짜기에서는 맑은 물길 곁에 잠시 머문다.
높은 곳에 오르면 강과 들판이 이어지는 풍경이 시야 가득 펼쳐진다.

오래된 소나무숲을 걷는 통도사 무풍한송길, 영남알프스의 산자락에 안긴 배대굴,
낙동강을 굽어보는 임경대까지. 걷고 머물며 바라보는 양산의 세 장소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나보자.



소나무와 계곡을 따라 걷는 길 통도사 무풍한송길

통도사 산문을 지나 무풍교에 들어서면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숲이 모습을 드러낸다. ‘춤추는 바람결에 물결치는 찬 소나무’라는 뜻을 지닌 무풍한송길이다. 청류동이라 불리는 통도사 계곡을 따라 약 1km 이어지는 길 양옆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울창하게 늘어서 있다.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은 나무 사이를 걷는 동안 곁에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발걸음을 따라온다. 완만한 숲길이라 서둘러 목적지로 향하기보다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걷기에 좋다. 짙은 소나무숲 사이로 가을 빛이 스며들고 계곡 주변의 나무들이 하나둘 색을 바꾸면, 길은 한층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띤다.

숲길 끝에서는 자연스럽게 통도사 경내와 마주한다. 자장율사가 646년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통도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소나무숲에서 시작된 산책을 오래된 사찰까지 이어가며 자연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다.

장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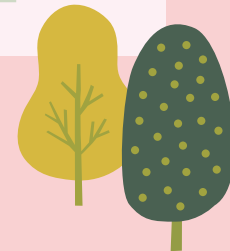
맑은 물길 곁에 머무는 시간 배내골

영남알프스의 산자락에 둘러싸인 배내골은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만들어진 계곡이다. 주변에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라 ‘이천동’이라 불렀고, 이를 우리말로 풀어 배내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여름이면 물놀이를 떠올리기 쉬운 계곡이지만, 가을의 배내골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계곡을 따라 물든 나무와 맑은 물길을 바라보고, 서늘해진 바람 속에서 한층 깊어진 산의 색을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오래 걷고 싶다면 대리와 선리 일원을 잇는 배내천 트레킹길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목재 데크와 생태길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물소리를 가까이 들으며 걷기 좋다. 과거 주민들이 마을과 마을을 오가던 길의 흔적도 남아 있어, 자연 속을 걸으며 배내골의 생활 풍경까지 함께 떠올려볼 수 있다.

장소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선리 일원



강과 들판을 한눈에 바라보다 오봉산 임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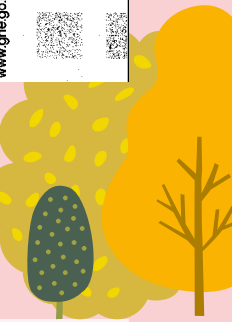
소나무숲과 계곡을 지나 마지막으로 찾을 곳은 오봉산 자락의 임경대다. 통일신라 시대의 문장가 고운 최치원이 머물며 시를 읊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나무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 끝에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정자가 자리한다.

정자에 올라서면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과 강 건너 화제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을별을 받은 들판과 잔잔하게 이어지는 강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오래 바라볼수록 차분한 여운을 남긴다. 눈앞의 경치를 빠르게 사진에 담기보다 정자에 잠시 앉아 강의 흐름을 따라 시선을 옮겨보는 편이 임경대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의 속도도 잠시 느려진다.

장소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산72-4

양산의 가을을 천천히 만나는 법

가을을 만나는 데 꼭 많은 장소와 화려한 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무 사이를 걷고, 물길 곁에서 쉬고, 한자리에서 오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 양산의 가을은 서두르지 않는 여행자에게 조용하고 깊은 쉼을 내어준다.



9월, 절기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바른 우리말

2학기가 시작된 9월의 국어 수업 시간. 창문 너머로 제법 선선해진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교실 달력에는 '백로(白露)'와 '추분(秋分)'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에게 가벼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애들아, 곧 다가올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지? 그럼 달력에 적힌 백로나 추분 같은 '24절기'는 음력일까, 양력일까?”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어? 추석이 음력이니까 절기도 음력 아닌가?”

“아니지, 달력에 날짜가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면 양력 같기도 한데...”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며 머리를 맞대던 중, 한 아이가 나름의 논리를 갖추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표로 답합니다.

“선생님, 24절기는 옛날 농경 사회에서 농사지를 때 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인 것 같아요!”

농경 사회의 맥락까지 짚어낸 아이의 훌륭한 추론에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반전을 담아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농경 사회라는 배경을 아주 잘 짚어냈어! 그런데 사실 24절기는 달의 움직임을 아니라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절기란다. 그래서 오늘날의 양력 날짜와 거의 일치하지.”

순간 교실 안의 와글거리던 소음이 푹 끊기고, 의아함과 호기심이 섞인 고요가 찾아옵니다.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황도)을 기준으로 15도씩 나누어 만든 완벽한 태양력의 체계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풀어내자, 그제야 아이들은 무심코 지나쳤던 달력 속 절기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9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가 몰랐던 절기의 비밀과 그 속에 담긴 다정한 우리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추석이 음력이니까
절기도 음력 아닌가요?

우리말 돋보기

가을을 품은 24절기와 바른 우리말

◆ 1. 24절기는 왜 음력이 아닌 '양력'일까요?

- **이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달의 모양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계절의 순환)'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 **원리:**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음력은 한 달이 약 29.5일이라 계절의 주기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태양이 하늘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황도)을 360도로 놓고, 15도씩 24등분하여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24절기를 만들어 농사에 활용했습니다.

◆ 9월에 마주하는 가을 절기의 우리말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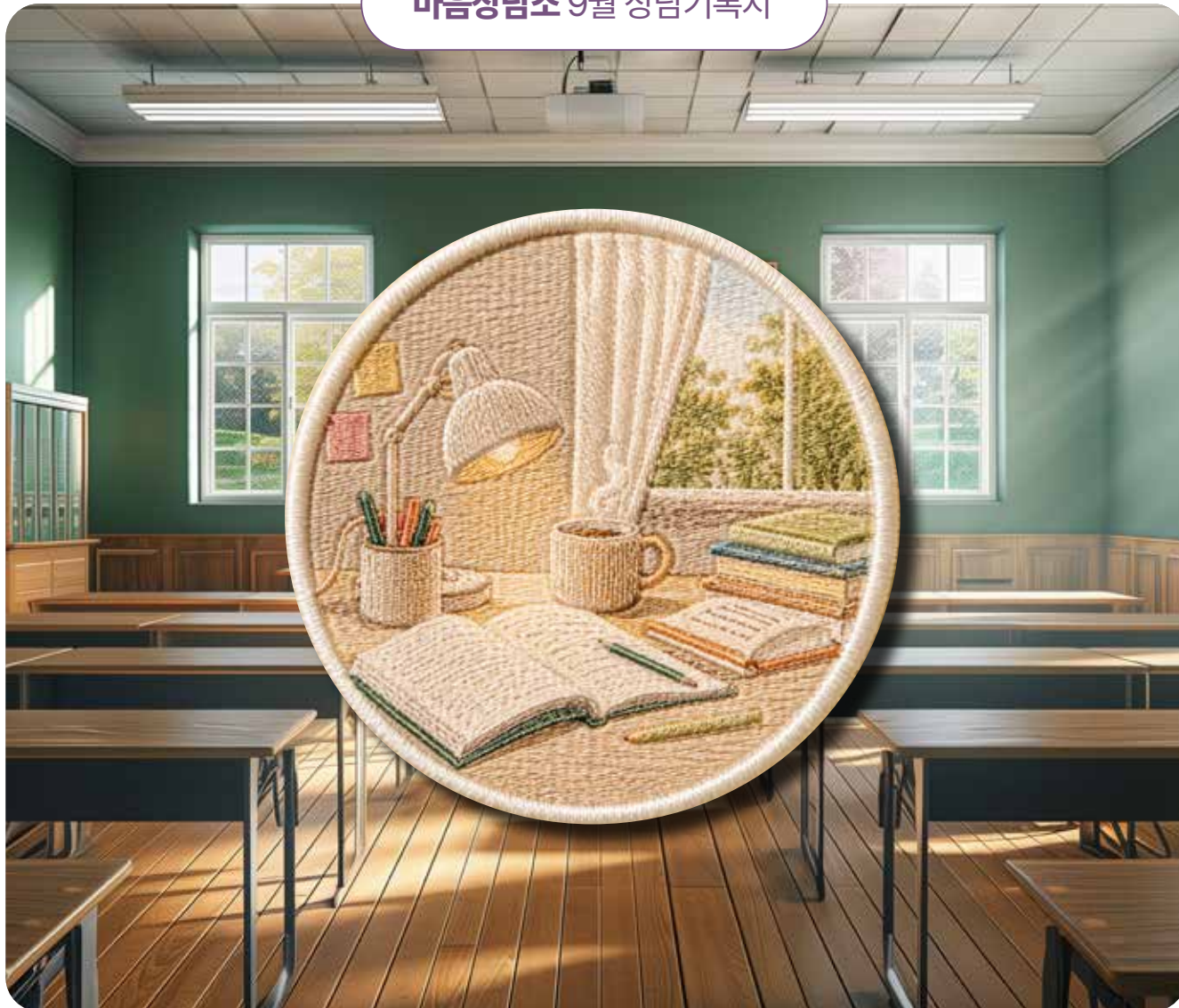
- **백로(白露):** '흰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밤 기운이 서늘해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방울방울 맺히는 시기로, 가을의 기운이 깊어짐을 알려줍니다.
- **추분(秋分):** '가을을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추분 이후에는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져 본격적인 가을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 가을의 길목에서 짚어보는 맞춤법

- **알알히 맺히다(X) → 알알이 맺히다(O):** 가을 곡식을 묘사할 때 자주 쓰입니다. '알알'이라는 부사 뒤에는 '-이'가 붙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 **가을은 의욕을 돋구는 계절(X) → 가을은 의욕을 돋우는 계절(O):** 선선한 가을이 되어 독서나 학습 의욕, 혹은 입맛을 위로 끌어올릴 때는 '돋구다'가 아닌 '돋우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글: 홍수진
호암중학교 국어 선생님

마음상담소 9월 상담기록지



학업 스트레스 (청소년기)

이달의
상담 주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 부담이 커진 것인지, 아이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예민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양육자로서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겪는 학업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싶어요.

고등학생 자녀가 학업 부담으로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는 모습을 보며 양육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학업량과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압박감, 아이가 겪는 학업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싶은 양육자님의 따뜻한 마음은 이 시기 아이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정서적 지지를 위한 대화법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걸음은 양육자가 '내 편'이라는 안전감을 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읽어주고 조건 없이 수용해주며 격려와 지지의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지쳐 보일 때 "요즘 공부할 양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건 네가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연히 힘들 수 있어. 우리는 네 성적보다 네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줘."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부모가 '든든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심리적 안전기지'로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환경 조성

첫째, 큰 학업 목표는 불안을 키울 수 있으니, 잘게 잘라 계획을 세워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가정 내 '학업 프리존(Free-zone)'을 지정하여 식사 시간이나 거실에서는 절대 성적, 대학,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규칙을 세우고 집을 스트레스 탈출구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충전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비타민 등 영양 섭취와 수면 환경을 점검하도록 하며 주말에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하도록 합니다.

두 아이와 고등학생 시기를 보낸 경험

두 아이와 고등학생 시기를 보낸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기에는 시험의 연속인데요. 수행평가, 중간·기말고사, 모의고사 정말 돌아서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해하는 아이를 위해 야자 후 학원 마치는 시간에 픽업하면서 두유를 챙겨주며 출출함을 달래도록 하였고 때로는 산책을 하며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시험 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준비하여 등교 시에 챙겨주었고, 시험 마치는 날에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미리 물어보고 외식을 하거나, 주문하여 홈파티를 하였습니다. 또 시험 마친 날에는 '학원 빼고 노는 날'로 정하여 친구들과 볼링, 영화, 노래방 등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복무중인 큰 아이와 대학 1학년인 작은아이는 스스로 자격증 시험에도 도전하며 학교에서 일정 점수가 나오면 환급해주는 토익프로그램도 스스로 찾아서 도전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성인으로 성장 해가고 있습니다.

양육자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힘든 고등학생 시기를 잘 보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육자님을 응원합니다!

글. 김혜영

경상남도가족센터 부모코칭전문가

9

2026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 창원도서관

● 김해도서관

● 마산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미래교육원

● 과학교육원

● 진로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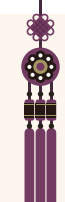
● 안전체험원

● 수확문화관

● 맛봄

일	월	화	수
		1 ● (~30일까지/월~금 운영) 10: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 (~30일까지/월~금 운영) 10:00 / 진주체험분원 /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2
			
6	7 ● (~16일까지)10:00 / 진주체험분원 /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사전 신청 기간	8	9 ● 15:00 / 3층 가야홀 / 영화상영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3	14 	15 ● 10:00 / 1층 꿈터 / 체험 <비건 샌드위치 만들기>	16 
20	21 	22	23
27 ● 15:00 / 3층 가야홀 / 영화 상영 <파워 퍼프걸 극장판 >	28 	29	30



목	금	토
3	4	5 ●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댄싱 로봇 공연> ● 10:00 / 1층 꿈터 / 훈민정음 독서대 만들기 ● 14:00 / 3층 가야홀 / 사람을 찾아온 고래들
		
10 ● 14:00 / 2층 만장대실 / 5060 클래스 <힙합 만들기>	11	12 ● 10:30 / 책담 2층 책고리 / 체험]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 자연 힐링 체험> ● 11:00 / 책담 1층 꿈뜨락 / 동화인형극 <백설공주> ● 11:00 / 3층 가야홀 / 공연 <달콤 나라, 달콤여왕> ● 14:00 / 3층 가야홀 / 저자강연 <김홍 작가와의 만남> ● 15:00 / 1층 세상올봄 / 공연 <디즈니 명곡 콘서트> ● 9:30 / 김해체험분원 / 9월 가족나들이 토요 생태체험 ● 9:50 / 학생안전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 <재난·지진·4D-비상슬라이드(항공)-풍수해-선박> ● 10:30 / 맛봄 / 가족단위 식생활체험(사전 신청자 대상)
17 ● 14:00 / 3층 가야홀 / 음악 인문학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로 만나다>	18	19 ● 11:00 / 책담 1층 다운누리(해오름 옆) / 체험 <AR 모래놀이> ● 14: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로봇공학자가 알려주는 AI시대에 우리의 생각 방식과 준비> ● 11:00 / 3층 가야홀 / 공연 <기억이 사라진 후크 선장> ● 14:00 / 1층 가야야고라 / 인문 버스킹 <선율이 머무는 김해도서관> ● 9:30,13:30 / 진주체험분원 / 9월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24 	25 	26
27	28	29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사항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사항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공도서관 예약



통합예약

51

경남다문화 교육박람회

09.18.(금요일)

09.19.(토요일)

10:00 ~ 16:00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사전행사

- K-POP 경연대회(사전경연)

07.25(토요일)

- 찾아가는 다문화 버스킹

8월~9월 사이

무대행사

- 개막식 • 세계 문화공연
- 다문화 K-POP 경연대회 수상팀 공연
- 사운드 퍼레이드
- 다같이(多가치) 놀이마당
- 레크레이션

부대행사

- 다문화 관련 부스 프로그램 40여 개
- 전통놀이 체험 • 미디어아트 체험
- 여권 스탬프투어 • 포토월
- 세계의상 체험 포토부스
- 피크닉 휴게존

• **개막식** 09.18.(금). 11:00 ~ 12:00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식전공연 / 축사 / 개막선언 퍼포먼스 등

